

# ‘시험단계’ 에볼라 치료제 물량 확보 관건

## 제약회사 “물량 이미 소진...추가 생산까지 몇개월 소요”

### 사망자 속출 속 을 연말께나 예방백신 등 공급확대 전망

세계보건기구(WHO)가 시험단계의 에볼라 치료제 사용을 허가했지만 당장 환자들에게 투여할 수 있는 양이 매우 적어 물량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에볼라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WHO는 이르면 올해 연말이나 에볼라 치료제 및 예방백신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험단계 치료제 중 가장 이목을 끈 ‘지맵’(Zmapp)의 개발사인 맵 바이오제약은 물량이 이미 소진됐다고 밝혔다. 추가 생산에도 몇 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미국 CNN방송 등 외신은 전했다.

지맵은 임상시험 단계라 원래도 12명분 정도에 불과했다. 미국인 환자 2명과 스페인

인 신부에게 투여됐고 라이베리아와 나이지리아에도 조만간 일부가 공급될 예정이다. 시에라리온도 12일 지맵 공급을 요청하고 나섰으나 가능한 재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맵을 통한 치료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이베리아에서 구호 활동을 하다 에볼라 감염으로 본국 송환된 미국인 켈트 브랜틀리(33) 박사와 낸시 라이트볼(60)은 호전되고 있지만 스페인 신부는 지맵 투여에도 불구하고 12일 사망했다.

캐나다 제약사인 테크미라의 치료제 TKM-에볼라라는 지난달 안전성 문제로 임상시험이 중단됐다가 에볼라 확산 사태와

맞물려 환자들에게 투여할 길이 열렸으나 물량이 거의 없기는 마찬가지다.

미국 제약사 사립다 역시 에볼라 치료제를 개발했으나 건강한 인체를 대상으로 한 초기 단계의 임상시험만 진행된 정도다.

시험단계인 예방백신도 당장 접종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프로펙터스 바이오사이언스는 각각 개발한 예방백신 2종에 대해 몇 주 안에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실제 접종 가능 여부는 연말에나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WHO가 밝혔다.

존슨앤드존슨 소속 제약사 크루셀도 이른 연말 임상시험에 착수할 예정이다.

캐나다는 12일 정부연구기관에서 개발한 800~1000명분의 시험단계 백신을 WHO에 기부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캐나다가 지금 소량의 백신만 보유하고 있지만 4~6개월이면 상당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에볼라를 이겨낸 환자의 항체를 다른 환자에게 주입하는 치료 방법도 있다. 1995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가 확산할 때 환자 8명 중 7명이 이 방법으로 목숨을 구했다.

WHO는 안전한 방법이 확보된다면 항체 주입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영국 BBC방송이 전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2일 조류 인플루엔자와 사스(SARS) 확산 당시 유엔의 대응을 책임졌던 데이비드 나바로 박사를 에볼라 조정관에 임명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 ‘침략역사’ 지우는 일본

## 태평양전쟁 당시 야나기모토비행장 설치 안내판 철거 등

### 자국 내 기록물·관련 유적 곳곳 철거...전쟁흔적 사라진다

침략 전쟁의 역사를 보여주는 일본 내 기록물이나 관련 유적이 곳곳에서 철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쿄신문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나라(奈良)현 덴리(天理)시에 설치된 야마토(大和)해군항공대 야마토기지(일명 야나기모토(柳本)비행장) 유적지에 설치된 안내판이 4월 시에 의해 철거됐다고 13일 보도했다.

여기에는 “조선인 여성이 강제 연행됐다”는 기술이 포함돼 있었다.

시는 “근거 없는 설명”이라는 항의가 이어지자 안내판의 내용이 시의 공식 견해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20년 가까이 설치됐던 안내판을 없애버렸다.

나가노(長野)시가 마쓰시로(松代)대본영(大本營) 지하호 입구 간판에 있는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동원했다는 서술 가운데 “강제적으로”라는 문구가 보이지 않도록 테이프를 덧붙인 것도 확인

됐다.

미에(三重)현 스즈카(鈴鹿)시의 해군항공대 격납고는 시설을 보유한 NTT 서일본이 해체했다.

오키나와(沖縄)현 마에다(前田)고지 후방진지 유적은 올해 구획 정리 과정에서 해체됐다.

아직 실행 전이지만 철거가 예정돼 있거나 철거를 요구받는 전쟁 기록물도 있다. 전쟁 중 도쿄도 무사시노(武蔵野)시에 설치돼 있다가 1944년 11월 24일 미군의 공습 표적이 됐던 나카지마(中島)비행기제작소의 변전실은 시가 공원 정비를 위해 철거하기로 한 상태다.

시즈오카(静岡)현 시마다(島田)시에 있는 이른바 ‘제트(Z)연구’ 유적도 하천 공사 때문에 해체될 가능성이 크다.

이 유적지는 태평양 전쟁 말기 미군 폭격기 B29에 전자파를 쬐서 조종 불능 상태로 만들려고 연구가 진행된 곳으로 작년에 발굴·조사됐다.

연합뉴스



다시 돌아온 이라크 야지디족 이라크 반군의 박해를 피해 시리아로 집단 피신한 소수종파 야지디족 사람들이 12일(현지시간) 데리크의 노우루즈 난민 캠프에 도착하고 있다. 야지디족 5만여 명은 이달 초 수니파 반군을 주도하는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 북부와 서부의 마을을 잇따라 장악하자 ‘개종·살해’위협을 피해 대거 피난길에 올랐다.

연합뉴스

# 미국 경찰, ‘배우 로빈 윌리엄스 자살’ 결론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티뷰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배우 로빈 윌리엄스(63)는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경찰의 공식 예비조사 결과가 나왔다.

마린 카운티 경찰국 검사관실 소속 키스 보이드 경위는 12일 샌 라파엘에 있는 경

찰국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윌리엄스의 개인 비서는 11일 아침 늦은 시간이 되도록 윌리엄스가 침실에서 나오지 않고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자 오전 11시 45분께 침실 문을 열고

들어가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같은 날 오전 11시 55분께 전화로 신고를 접수하고 정오께 현장에 도착했으며, 낮 12시 2분께 사망을 확인했다. 경찰은 윌리엄스의 시신이 허리 띠에 매달려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공식 예비조사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목을 매달아 생긴 질식사라고 밝혔으나, 최종 결론이 나오려면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윌리엄스의 시신 근처에 흉기가 있었으며, 왼쪽 손목에 깊지 않은 상처가 있었다고 보이드 경위는 전했다. 보이드 경위는 “유서가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윌리엄스의 사망이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과 관련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간 채 독성 검사 보고서가 나오려면 2~6주가 걸릴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연합뉴스

# 가미카제 생존자들 “日신세대 전쟁참상 몰라”

가미카제 조종사 간베 유타카는 약 70년 전에 죽은 뻔한 목숨이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정부가 항복을 선언하면서 그는 수천명의 젊은이들이 희생된 자살특공대전에서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다.

올해 91세로 다시 한번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바라보는 간베 노인은 아베 신조 총리 정부의 우경화, 가미카제 특공대를 미화한 영화가 개봉된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를 일본 신세대들에게서 전쟁의 공포가 사라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는 간베 노인은 “미친 것이다. 우리의 작전을 미화하려는 의도를 지지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우리 지도자들 모두가 아베와

같다면 일본은 다시 전쟁에 나설 수 있다”면서 “나는 곧 죽을 사람이지만 일본의 장래가 걱정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적들의 등에 식은땀을 흘리게 한 일본의 자살특공대전으로 약 4000명의 조종사가 숨졌다. 이들 대부분은 목표물에 닿기도 전에 격추됐다.

생존한 가미카제 조종사들이 몇 명인지를 밝혀줄 공식적 자료는 없고 일본 학교의 교과서에도 거의 언급이 없을 정도다.

그러나 베스트셀러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영원의 제로(0)’가 올해 초 개봉되면서 가미카제 특공대는 다시 일본인들의 기억 속에 되살아나고 있다.

연합뉴스

# 美 미주리주 흑인시위로 한인업체 7곳 피해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10대 흑인이 경찰 총격으로 숨지는 사건 이후 발생한 시위와 폭동으로 일부 한인 업체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미주리주 담당 공관인 주시카고 총영사관 이재용 부총영사는 12일(현지시간) “미용 재료상 6곳과 휴대전화기 판매점 1곳 등 모두 7개 한인 업체가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 부총영사는 “시위가 예상돼 있었기 때문에 인근 상점들이 대부분 일찍 문을 닫고 귀가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면서 “한인 피해 규모는 업소당 3천~3만달러(약 320만원~3천200만원) 정도 로 보고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 홍보지 및 판촉물
- 전단지
- 현수막
- 상패

- 각종 인쇄물
- 상패
- 각종 인쇄물
- 전단지

- 현수막
- 각종 인쇄물
- 홍보지 및 판촉물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udtjs12@hanmail.net